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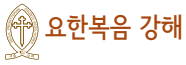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죄 없는 자가 치라 II

(요 7:53-8:11)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3. 예수님의 용서

(1)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고 나오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글자한 자 남긴 것이 없는데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자 예수님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란 율법을 다 지킨 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7절에 의하면 증인이 돌을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돌을 던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먼저 돌을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요 8:8). 그때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2)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과를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인간들의 월권행위를 옳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여인의 간음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여인의 간음죄보다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죄입니다. 심판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인간들이 고발자와 심판자가 된 것은 주님에 대한 월권이요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불의한 고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하신 주님은 가련한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온유하신 모습으로 대해 주십니다. 선하신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회개를 재촉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좌절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

(1) 죄는 무서운 것

간음한 여인의 죄도 무서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다른 여자의 생명을 대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2)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말씀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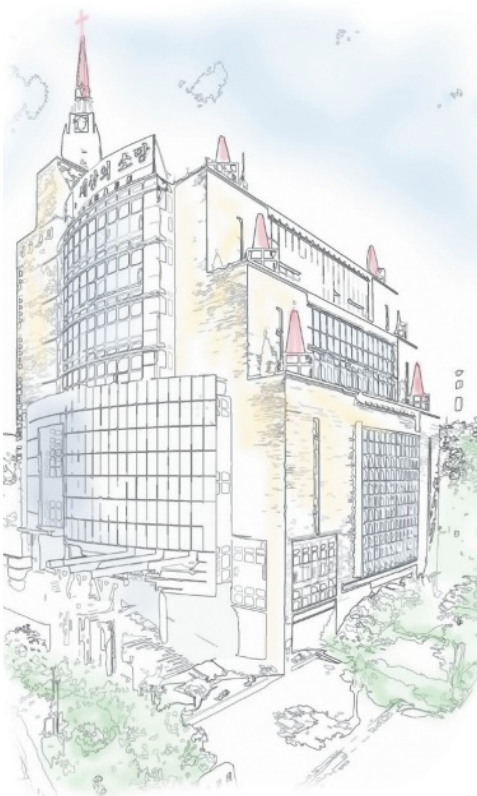
이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혹은 육신의 질병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얽히고설킬 것 같으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죄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당시의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이 여자를 놓아 주려면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될 텐데 증인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뒤에 항상 따라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 죽음에 근거하여 너를 용서하노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이 불쌍한 여인을 때리려고 쫓아가는 군중들은 아닙니까? 주님을 책잡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산시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자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장로 10명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한다

-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1-7)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5대 장로 10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린다.

공동의회에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세례교인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헌법 제41조 제1항, 서울교회 정관 제6조 3항에 따라 총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로 피택되게 된다. 투표권을 가지는 성도들은 지난 주일 순례자를 통해 배포된 명단을 잘 살펴보고 기도한 후 다음 주 공동의회에서 후보 18명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장로 투표는 종전과 달리 기표 숫자를 피택 예정인원인 10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 개인별로 장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결과 총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을 피택하되, 그 숫자가 노회에서 허락받은 피택 예정인원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득표 순, 임직 순, 연령 순으로 10명만 피택하며, 투표 결과 총 투표수의 2/3 이

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피택 예정인원의 과반수(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실시하게 된다.

이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장로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노회훈련원에서의 위탁교육과 교회에서 계획한 훈련을 받고 내년 봄노회 전 실시되는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장로로 임직하게 된다.

한편 오늘 공동의회에는 장로 선출 안건 이외에도 지난 8월 정기당회에서 의결한 오정수 장로, 노문환 장로, 서문석 장로에 대한 원로장로 추대 안건과, 안수집사 피택후보 공고 당시 착오로 누락된 김만윤 집사에 대하여 당회가 피택집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피택자 교육에 참여시켜 교육하고 후에 소집되는 공동의회에서 추인 받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김만윤 집사에 대한 안수집사 피택 추인 안건도 함께 상정된다.

특별새벽기도회 : 11. 22(월)-11. 27(토)
새벽 5:00-6:00
강사 : 손달익 담임목사

2021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전교인 성경읽기표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율기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하고 있다.

11월 5일(금) 낮 12시 기준 '사명자대회 24시간 기도 릴레이' 연인원이 5,925명이다.

특히 2021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1인 1사랑의 실천'도 진행 중이다.

또한 11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일주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에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참석 바란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월 부모 기도회

1.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

- 대상 :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 수험생을 두신 모든 부모님들
- 일시: 2021년 11월 14일(주) 오후 3시-4시
- 온라인 ZOOM으로 진행

2. 수능 당일 기도회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101호 웨스트민스터홀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규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2021 성경암송대회

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이 한주앞으로 다가왔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김승록 집사(교육위원회 서기)에게 연락 바란다.

- 참석 신청 : 김승록 집사
(010-9588-7920)
- 암송 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1월 13일(토)
오후 1:00
- 교회학교 본선 : 11월 14일(주)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4일(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한다.



2021 사명자대회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박광식 집사
(2021 사명자대회
차장)

사명(使命)이란 사전적 의미로 “맡겨진 임무”, “섬기다”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2021 사명자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맡겨 주신 거룩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며 하나님과 깊은 공감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8월에 2021 사명자대회 준비위원회 차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서울교회의 아픔을 치유하며 코로나19로 변화된 예배 환경에 부

흥하고자 준비위원장인 오치열 장로를 비롯한 각 위원 분과장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간의 서울교회의 전통으로 사명자대회를 진행한 101호에서 릴레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없어지고 각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로 참여하며 기도 신청서도 서면으로 접수하는 대신 각 다락방/교구별로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와 보살핌으로 이전보다 많은 성도의 참여로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2021 사명자대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간 만남의 교제가 없어 흑여 나 중심적인 단일한 믿음의 신앙에 익숙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사명자대회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

은 성도들께서도 동참하여 주시고 2021년도 사명자대회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완주하도록 소망합니다.

서울교회가 날로 빠르게 세워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네 사명이 무엇이나고 주님이 물어볼 때에 나는 선뜻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까지 바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봅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1 사명자대회를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2021 사명자대회 - 1인 1사랑

그리운 리브가전도회 회원님들

리브가전도회(회장 : 김찬진 권사)는 2021 사명자대회 중 진행 중인 '1인 1사랑' 일환으로 몸이 불편하여 장기간 교회에 출입을 못하시는 리브가 회원들을 찾아뵙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일 1부 예배가 끝난 후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미리 준비한 위로품을 환우들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리브가 임원들이 환우들에게 전달한 편지들이다.

(편집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리브가전도회원과 가족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서서 치료 받는 일로 힘들고 지친 때에도 항상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김찬진 권사)



우리의 참 소망되시며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우들의 병상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허현숙 권사)

K 권사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손 잡아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꺼내어 주셔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희 권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리브가전도회 여러분, 오랜 시간 얼굴을 대하지 못해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갑니다.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져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고단했는지라도 주님 안에서 오히려 잘 견디셨습니다. 오는 해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피차에 강건한 모습으로 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허숙 권사)

L 권사님, 연약한 곳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사 강건케 하옵소서. 늘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금전 권사)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저물어 가는 이때에 긴 분쟁을 완전히 끝내주셔서 무너졌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더 큰 감사로 영광돌리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이 모양만 갖춘 능력 잃은 한 해를 보내고 있던 중에 라브가전도회를 통해 우리 안의 환우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전도회의 작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우들이 많이 생긴 리브가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교회 안에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더 힘과 용기를 내어 기도로 동참하시도록 붙들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육신의 연약함까지 회복되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서 예전처럼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를 조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희숙 권사)

선교보고 - 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손달의 목사님과 서울교회와 당회, 선교위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관심과 기도에 주신 덕분에 치그라푸라 마을 아가페 센터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 고국에 머물렀다가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선교지로 향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마음이 파송식을 하고 처음으로 가던 13년 전 그때의 마음과도 같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상황은 올 초 심각한 상황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가나할리 교회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니모처나 교회, 딘네 교회, 그레이스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곳 아가페 교회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가페 학교는 교육청에서 개학 허락이 없어 정상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가페 선교관에서 학교 근처 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학교는 다음 달부터 개학이 정식 허락이 되어 정상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코로나의 확진자 수는 현저히 낮아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모임이나 식당 등에서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시골지역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2층을 증

축 중에 있으며 그동안 건축 업체의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교회와 학교 1층 건축) 저희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건축비를 미리 지급하지 못하였는데(인도는 건축 비용은 선불임)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가페 학교 2층 증축 건축비를 후원해 주신 서울교회와 당회, 선교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소멸되어 인도와 한국,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회복과 치유, 정상화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인도 아가페 선교센터 기도제목

1. 아가페 교회, 아가페 유치원, 아가페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2. 인도 동역자(목회자)를 위해서!
3. 치그라푸라 마을, K.G 꼬떼 마을, 페담팔리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4. 나가나할리 교회, 니모처나 교회, 딘네 교회, 그레이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5. 아가페 학교 2층 증축 공사 완공을 위해서!
6. 인도의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7. 한국과 인도, 전 세계의 COVID-19가 종식되어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8.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의 사명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인도에서
우상식·김정옥 선교사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당회원 면접 및 당회고시 일정

일시	교육과목	강사
11.13(토) 오후3시-피택권사 / 오후4시20분 - 피택집사	당회원 면접	당 회
11월 14일(주)	당회고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8일	월	행 15-16		마 16-20	
11월9일	화	행 17-19		마 21-24	
11월10일	수	행 20:1-22:21		마 25-28	
11월11일	목	행 22:22-25:27		막 1-5	
11월12일	금	행 26-28		막 6-9	
11월13일	토	롬 1-2		막 10-13	
11월14일	주일	롬 3-5		막 14-16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4. 목요일 한국기독교교단선교연맹회 72차법정정기이사회에 참여했다.
- 떡제공 : 이우진 집사·김일순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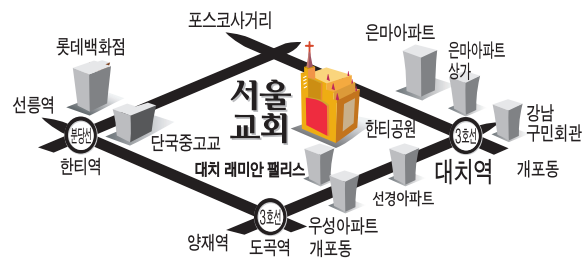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느헤미야기도와 자유키도, 1인 1사랑 실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전 성도가 사명자로 구비되게 하소서.
2. 15대 안수집사, 14대 권사 피택자 임직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15대 장로 피택자 훈련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시작되게 하소서.
3. 한국 교회로 하여금 위드코로나 시대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향한 진전이 있게 하여 주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